

■ 올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14일 실시

영역별 대비 전략

언어 제시문별 분석 수리 기출문제 정리

올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1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3월 학력평가는 겨울방학 동안 다져왔던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3월 모의고사 시험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 말은 시험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일 뿐이다. 모의고사는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수능 준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험이 끝난 후 오답 노트를 만드는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자신이 틀린 문제와 아직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보고 짚어보면 6월 평가원 모의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별 시험 대비 전략을 살펴본다.



오는 14일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준비가 본격에도 오른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광주 서석고에서 실시된 '서울대 2008학년도 모의논술고사'에서 광주지역 15개 고교생 30명이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언어 영역=부분별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혀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문학' 파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핵심 용어나 지식을 이해하며 제시문별 접근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독해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특히 비문학 독해의 경우 제시문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연습과 함께 낯선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 접근 방식 및 해결 전략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어휘 꾸준히 암기토록

과학탐구-단원별 개념 이해를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연습함으로써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의 해결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세부적인 사건을 끼워 넣는 식으로 기억하는 학습법이 효과적이다. 단순 암기가 아닌 역사적 사료와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학탐구 영역=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해 심화개념 정리를 토대로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복잡한 수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고력 및 응용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단원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단원을 통합한 이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수리 영역=수능 기본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교과서 외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리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워야 한다. 단원별 개념과 출제 유형을 확실히 이해해 새로운 문제 유형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후 수능 기출문제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모의고사를 단원별로 분류해 학습해야 한다.

◇외국어 영역=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영문 독해의 기본을 다지고 제시문 상의 문맥과 전후 관계를 파악해 긴 문장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구

문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듣기' 부분에서는 출제 유형별로 정리해두고 듣기 기본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 출제 기본방향에 근거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한다. 어휘는 하루에 분량을 정해 꾸준히 암기하고 문법만이 아닌 구문과 독해를 병행해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사회탐구 영역=심화 개념 완성을 토대로 단원별로 연계되는 부분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취약한 단원별 주제를 정리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심화 개념을

자료 제공 : 비티에듀(www.vitaedu.com)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경찰행정학과, IT접목학과 지원받아

○남부대(총장 임일남) 경찰행정학과가 정보통신부 주관 IT접목학과 지원사업 지원대상 학과로 선정됐다.

IT접목학과 지원사업은 IT관련 학과가 아닌 학과를 대상으로 IT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교육기자재 확충, 교과목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IT접목학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지원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대학 측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과학적 수사기법인 '컴퓨터포렌식'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기반구축에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업단 주관으로 진행된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지난해 3~12월 호남대와 일본 도쿄 공업대에서 교육·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부터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도쿄, 오사카 등의 IT 관련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호남대는 교육부 누리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200여명의 졸업생을 일본 현지 업체에 취업시켰다.

장애학생 전용 이동차량 운영

○전남대(총장 강정재)가 장애 학생들의 대학 내 이동과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전용 이동 차량을 마련, 1학기부터 운행한다.

전남대가 이번에 4천만원의 들여 구입한 장애 학생 전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25cm가량 높은 하이루프를 장착해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하게 탑승할 수 있다. 또



무거운 전동 휠체어 및 도우미 동시 탑승을 고려해 대용량의 리프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선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

스키 전문지도자 양성 나서

○조선대(총장 김주훈)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스키리조트 (주)휘트니스파크와 손잡고 스키전문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정명수 조선대 체육대학장은 최근 휘트니스파크 안명호 대표이사와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스키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스키 프로그램 산학협력사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스키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조선대는 앞으로 휘트니스파크와 함께 산학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선대 학생 중 스키 프로그램에 참가할 교육생을 선발, 휘트니스파크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수 산학실습생을 우선 취업시키겠다는 취지이다.

日 헤드헌팅 업체와 취업 계약

○호남대(총장 이현청)가 최근 일본의 헤드헌팅 업체인 자넷넷과 호남대 해외취업 연수단 21명을 고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해외취업 연수단 21명은 호남대 IT·CT 인력양성사

취업 확충사업 지원 대학 선정

○서강정보대(학장 김정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부 주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취업지원 확충사업은 대학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운영·직업진로 상담·모의면접교육·취업행사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2년째 시행되고 있다.

서강정보대는 전국 1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 다기능 인재양성을 위한 취업특화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약 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강정보대는 취업지원센터·취업정보 PC방 등 취업지원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체 맞춤형 다기능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오사카 국제대학과 협약 체결

○동강대학(학장 이주석)이 최근 일본 오사카국제대학과 전면적인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동강대학에서 추진 중인 특성화사업인 '지역전략산업의 중공 및 아시아권 경쟁력 강



화를 위한 ABL(활동중심학습구축) 기반 국제실무인력 양성'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동강대학은 앞으로 단기 어학연수·현지화기재·현지인턴십·교직원 상호교류·국제공동연구 등을 비롯해 일본 현지취업, 2+2 협약체결에 의한 3학년 편입학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오답 노트 작성법

대부분 오답 노트를 만들 때 틀린 문제를 붙이고 해설도 붙이거나 쓰거나 하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런 기계적인 방법은 별 효용이 없다.

오답 노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듯이 써보는 것이 좋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일기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틀렸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그 답을 택했는지, 자신의 풀이 과정이나 원리 공식 적용 내용,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적는다.

문제 접근 방식·풀이 과정 등 일기처럼 써야 '효과'

간혹 가다가 짚은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이 문제는 찍었다'식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게 틀린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하게 접근하고 이리저리하게 풀어야만 한다는 식의 자기 평가나 소회, 또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정도의 학습과 내용이 필요한가,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는 어느 교재의 어느 문제인가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여백을 많이 남겨 놓고 점진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좋다. 언어, 영어는 지문이 길므로 지문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밑에 문제를 올려놓거나, 문제는 따로 철퍽해 놓고 노트에는 문제 출처와 특징만을 적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수학, 탐구영역은 원본 또는 복사본의 문제를 올려놓거나 직접 손으로 써넣으면 되는데, 풀이 과정이나 답을 선택한 이유, 잘 모르거나 틀린 이유, 소감 등을 적고

앞으로의 학습 대책을 써넣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과 탐구영역만 오답 노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수능형 시험에서는 언어(국어)와 영어가 더 효과적이다. 언어(국어)와 영어의 대부분 문제는 답의 실마리가 지문 안에 있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문을 계속 보면 생각해보면 실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문제를 붙이고 지문을 분석하고, 자신이 답을 선택한 과정을 쓰고, 문제지 해설을 보고 스스로 다시 해설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빨간 색으로 자신이 오답을 택한 이유를 다시 간략히 쓰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쓴다. 문제지의 해설을 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과정을 적어가면서 검토해보면 자신이 풀 과정 중에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아랫부분만 봐도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김성규·1318 일시상담소장>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3월 5일 개강

지금, 중국어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평가를 받으세요.

- ▶ 1월 10일 (토) 19:00~21:00
- ▶ 1월 12일 (토) 19:00~21:00
- ▶ 1월 14일 (토) 19:00~21:00
- ▶ 1월 16일 (토) 19:00~21:00
- ▶ 1월 18일 (토) 19:00~21:00
- ▶ 1월 20일 (토) 19:00~21:00
- ▶ 1월 22일 (토) 19:00~21:00
- ▶ 1월 24일 (토) 19:00~21:00
- ▶ 1월 26일 (토) 19:00~21:00
- ▶ 1월 28일 (토) 19:00~21:00
- ▶ 1월 30일 (토) 19:00~21:00

총학에 사관학교

리틀차이나 中国語 学院

광주광역시 남구 동천동 10-1번지 TEL: 062-2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860점 만점반
- 6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중·고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밑구 062-222-6253